

세계 최대 압연 알루미늄 및 재활용 기업 노벨리스, 영주·울산공장 4천억 규모 증설 준공

압연 생산능력 100만 톤으로 확대, 아시아 지역에 대한 노벨리스의 사업의지 강화

세계 최대의 압연 알루미늄 및 재활용 기업 노벨리스는 오늘 2년간 총 4,000억 원을 투자한 국내 생산설비 증설을 완료했다고 발표했다. 이번 영주, 울산 공장의 증설로 노벨리스의 아시아 지역 내 알루미늄 판재 생산규모는 50퍼센트 이상 증가한 연간 100만 톤으로 확대되었다.

필 마튼스 노벨리스 사장 겸 CEO는“한국 내 투자 확대는 노벨리스 글로벌 전략의 핵심 요소”라고 밝히며“이번 증설을 통해 세계 최대의 알루미늄 시장이자 가장 빠른 성장세를 나타내는 아시아 지역의 음료 캔, 소비자 가전, 자동차 등 주요 시장에서 선도적 지위를 공고히 할 수 있게 되었다”고 말했다.

노벨리스는 아시아 시장에서 고부가가치 제품의 소재인 압연 알루미늄 판재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자 이에 대응하기 위해 2011년부터 압연 알루미늄 생산설비 확장에 착수한 바 있다. 이번 설비 증설로 영주에서 이미 가동 중인 통합 재활용 설비와 더불어 열간압연 피니싱 밀, 냉간압연기, 균열로, 소둔로, 고속 슬리터 등이 증설되었다.

샤시 모드갈 노벨리스 아시아 사장은“이번 설비 증설로 아시아 내 신규 시장 진출이 가능해졌다”고 밝히며“2014년 중반부터 중국 창저우에서 가동할 예정인 자동차용 알루미늄 판재 생산 공장에 공급할 압연코일 물량을 확보하게 되었을 뿐만 아니라, 소비자 가전 등 최상의 표면 품질을 요구하는 고부가가치 제품 시장에서 새로운 사업기회를 모색할 수 있게 되었다”고 말했다.

자동차 업계에서 차체 경량화와 연비 개선을 추구하는 추세가 가속화되고 있는 가운데, 향후 5년간 아시아 내 자동차 시장의 알루미늄 수요는 글로벌 시장의 연 평균 25퍼센트의 성장세를 상회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번에 증설된 국내 시설은 고속 성장 중인 아시아 시장의 수요에 대응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노벨리스는 2012년 10월 영주 공장 내 알루미늄 재활용·주조 시설을 건립해 가동 중이다. 영주 리사이클 센터는 아시아 최대의 알루미늄 음료 캔 재활용 시설로서 시트 인고트 생산 규모가 연간 265,000톤에 달한다. 영주 리사이클 센터 건립은 노벨리스가 2015년까지 글로벌 재활용 및 주조 생산 규모를 210만 톤으로 확대할 목적으로 지난 2년간 진행해온 설비 증설 프로젝트의 일환이다.

노벨리스는 서울에 아시아 지역 총괄 사업본부를 두고 한국, 말레이시아, 베트남 내 4개소에서 공장을 운영 중이며 2014년에는 중국에 신규 공장을 가동할 예정이다. 노벨리스 아시아 지역에는 이번 설비 증설로 새롭게 채용된 200명을 포함하여 약 1,800명의 임직원이 근무 중이다.

노벨리스 소개

노벨리스는 알루미늄 압연 제품 부문을 선도하는 글로벌 기업이며 세계 최대의 알루미늄 재활

용 업체이다. 9개국에 11,000여 명의 직원이 근무하고 있으며, 2013년 회계연도에는 매출 98억 달러를 기록했다. 노벨리스는 북미, 유럽, 아시아, 남미의 수송, 포장, 건설, 산업재, 소비자 전자제품 시장에 고급 알루미늄 판재와 포일 제품을 공급한다. 노벨리스는 아시아 최대 규모의 통합 알루미늄 생산업체이자 구리 생산기업인 힌달코 인더스트리즈(Hindalco Industries Limited/ BSE: HINDALCO)의 자회사다. 힌달코는 인도 뭄바이에 본사를 둔 다국적 대기업인 아디트야 비를라 그룹(Aditya Birla Group)의 주력 법인이다. 회사 홈페이지(www.novelis.com)와 트위터(twitter.com/Novelis)를 통해 보다 자세한 정보를 얻을 수 있다.